

보도자료



보도 희망 일시	즉시		
배포일	2023. 10. 23.(월)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880-9072, 5054)
담당기관	중앙도서관	문의	고문헌자료실(880-8071)

중앙도서관, 권영민 문고 설치 기념전

□ 올해 2023년은 중앙도서관에 개인문고가 설치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3년 방종현 선생의 일사 문고를 설치하면서 중앙도서관 개인문고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해에 권영민 교수(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문헌 1,654점을 기증받게 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장덕진)은 70년 역사의 개인문고와 권영민 문고의 문헌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 현재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기존의 Library 기능을 확장하여 Archive와 Museum의 기능을 결합한 Larchiveum으로의 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대 공동체 관련 귀중 문헌의 수집과 전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이번 기념전은 그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것입니다.

□ 개막식은 2023년 10월 25일(수) 오후 2시 중앙도서관 관정마루 앞에서 열리며, 전시는 2023년 10월 25일부터 12월 15일(금)까지 진행됩니다.

70년 역사의 개인문고 대표 문헌 한자리에 선보여

□ 중앙도서관에는 규장각으로 장기 대출된 도서를 포함하여 국보 3종, 보물 15종, 등록문화재 3종, 세계기록유산 3종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보급 문화재 가운데 무려 12종(국보 1종, 보물 6종, 등록문화재 2종, 세계기록유산 3종)이 개인문고 속 문헌입니다. 일사, 가람, 상백 선생 등은 고서에 대한 높은 안목으로 한국학 주

요 자료를 선별해 수집하셨으므로 중앙도서관 개인문고 장서는 일반 기증문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문헌학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 이에 이번 전시에서는 개인문고 속 기록문화재(국보, 보물, 등록문화재, 세계기록유산)의 전모와 공식 등재서(인증서)를 모두 소개하고, **일사 문고의 등록문화재 <대한매일신보> 및 상백 문고의 세계기록유산 『연설대해』** 실물 문헌이 전시됩니다. 아울러 각 문고별 대표 도서를 선별하여 1493년 성종대 명찬본 『사문유취』 일사 문고본 / 1581년 선조대 내사본 『삼강행실도』 일석 문고본 / 유길준 『서유견문』 초판본, 백사 문고본 / 『정지용 시집』 초판본 가람 문고본 /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의 학회지 『한글』 심악 문고본 나아가 16세기 출판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신용하 문고본 / 16세기 출판된 <히포크라테스 현존 논문집> 슈클라오세경 문고본 등이 망라되어 전시됩니다.

대학시절부터 고서점 골목을 발로 뛰며 문헌을 수집한,

권영민 교수의 보물 컬렉션 공개

□ 2023년 권영민 문고를 새롭게 설치함에 따라, 중앙도서관은 국문학 분야에서 명실상부 최고의 컬렉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권영민 문고는 가람, 심악 문고의 전통을 이어 1994년 이후 중단된 고문헌 기증의 흐름을 되살리고, 스승인 백사 전광용(1919-1988) 문고에 버금가는 희귀한 근대문헌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 권영민 문고의 기증 고문헌 400점은 충남 보령에 세거했던 그의 집안에 전승되어온 것입니다. 경부 23종 54책, 사부 31종 140책, 자부 15종 80책, 집부 67종 126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5세기 중국에서 간행한 『책학연의』에서부터 17세기 초 금속활자(훈련도감자)로 출판된 『초자집주』 등 희귀본 문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문헌은 조선시대 가학이 형성되는 과정과, 한 집안의 문헌이 인척 관계를 통해 유통되고 축적되어온 과정을 생생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출판문화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 권영민 문고 기증서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단연 그가 대학 시절부터 고서점의 골목을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문헌들입니다. 여기에는 『무정』 5판본(1924), 『만세전』 초판본(1924), 『백록담』 초판본(1941) 등 근·현대 문학사에서 손꼽히는 주요 문헌의 희귀본이 여럿 존재합니다. 북한 문학 관련 자료들도 90점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권영민 문고의 『문학신문』은 창간호부터 1960년 12월 27일까지 보존한 국내 유일의 자료입니다.

□ 이로써 중앙도서관 개인문고는 한국문학사의 문헌학적 집대성이라고 이를 만한 정점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가람 문고본 『정지용시집』은 정지용의 첫 번째 시집 초판본이고, 권영민 문고본 『백록담』은 그의 두 번째 시집 초판본입니다. 백사 문고에는 이광수의 『무정』 9판본이 있고, 권영민 문고에는 『무정』 5판본이 있습니다. 일사 문고에는 박은식이 주필로 활동하던 『대한매일신보』가 있고, 권영민 문고에는 그의 역사소설 『서사건국지』가 있습니다. 70년 역사의 중앙도서관 개인문고, 그리고 권영민 문고를 통해 위대한 작가를 알아보는 눈은 세월의 격차를 넘어선다는 것을, 그 문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면면히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 이번 전시를 통해 학술로 쌓아올린 문헌의 금자탑, 중앙도서관 개인문고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문헌의 가치와 그 문헌을 수집하고 기증하는 학자의 뜻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전시 세션별 개요

세션	주요 내용
메인세션 1. 70년 역사의 중앙도서관 개인문고 그리고 권영민 문고	개인문고 설치 70주년을 맞아, 1953년 설치된 일사 문고부터 올해 새롭게 설치된 권영민 문고까지 중앙도서관 개인문고의 대표 서적을 선별해 전시한다. 한국만이 아니라 서양과 중국의 고문헌을 망라하며, 신문, 잡지, 책 등 출판방식도 다양한 여러 문헌이 출품된다. 특히 일사 문고본 등록문화재 <대한매일신보>, 상백 문고본 세계기록유산 <연설대해>가 최초로 출품된다.

메인 세션 2.
충남 세거 안동 권문의 장서
(권영민 문고의 고문헌)

권영민 문고의 고문헌(~1909년) 400점 중 문헌학적 가치가 높은 13점의 자료를 선별해 전시한다. 경사자집을 아우르는 권영민 고문헌은 조선시대 지방 사대부 가문의 보편적 장서 구성을 대변하고 있다. 여기에는 15세기 중국에서 간행한 『책학연의』에서부터 17세기 초 금속활자(훈련도감자)로 출판된 『초자집주』 등 희귀본 문헌이 포함되어 있다.

메인 세션 3.
권영민 문고 속 보물 책
(권영민 문고의 근대문헌)

권영민 문고의 근대문헌(1910~1953) 190점 중 60점이 전시된다. 갈래별로 나누어 주요 시, 소설, 평론의 초판본을 살펴보고, 북한 문학도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다수의 문헌이 기증된 여덟 작가, 이광수·염상섭·박태원·최남선·현진건·김동인·이태준·이기영에 대해서는 이들 문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김영일의 사』(1923) 『만세전』(1924) 등을 비롯한 이들 문헌들의 다수가 초판본이며, 근·현대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손꼽히는 작가와 문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근대문헌의 보고로서의 권영민 문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갤러리월
개인문고 속 기록문화재

중앙도서관 개인문고에는 12종의 국보급 문화재가 존재한다. 국보 1종, 보물 6종, 등록문화재 2종, 세계기록유산 3종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 기증문고와 차별화되는, 중앙도서관 개인문고의 높은 가치를 선명히 보여준다. 이 점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사진 자료만이 아니라 문화재 등재서 및 인증서 등도 함께 보여준다.

전시 문의: 고문헌자료실(02-880-5314)

* 붙임: 대표 전시도서 목록

대표 전시도서 목록

(1) 개인문고와 권영민 문고

연 번	서명	발 간 년 도	내용
1	신편고금사문유취 新編古今事文類聚 (일사 문고본)	1493	중국 고대에서 송나라 시기까지의 온갖 사실과 문물을 모아 분류한 유서(類書)이다. 최초 편찬자 축목은 주희의 제자로서, 성리학의 입장에서 편찬한 책이기에 조선시대 성종이 간행을 명하여 당대 신하들에게 반사하였다.
2	히포크라테스의 현존 논문집 <i>Hippocratis Coi medicorum</i> <i>omnium facillè principis opera</i> <i>quæ extant omnia</i> (슈클라·오세경 문고본)	1567	르네상스 시기 의사이자 인문학자인 야누스 코르나리우스가 라틴어로 번역한 히포크라테스 논문집이다. 본 문헌은 그의 사후 루그두니에서 1567년에 출판된 것으로, 70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논문의 주제는 수의학부터, 환경, 인간의 본성, 출산, 그리고 여러 외과적 질병들 및 인체의 구조까지 다양한 범주를 아우른다.
3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S. Thomae Aquinatis Svmma totivs theologiæ (신용하 문고본)	1569	중세 유럽의 스콜라 학파를 대표하는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벨기에 안트베르펜에서 출판한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유럽의 신학 체계를 정립한 최고의 권위자로서, 그의 저서 『신학대전』은 가톨릭 신학 교리의 주요 근거서이자 종합서로 일컬어진다. 본서는 1569년에 출판된 것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희귀본이다.
4	주자증손여씨향약 朱子增損呂氏鄉約 (일석 문고본)	1574	송나라의 학자 여대충(呂大忠) 등의 저작인 『여씨향약』을 주희(1130-1200)가 첨삭하여 만든 서적이다. 향촌의 자치적인 규약을 담고 있는데, 조선시대 향촌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정에서 간행하여 널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일석 문고본은 1574년(선조 7년) 2월에 반사된 내사본이다.
5	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 (일석 문고본)	1581	세종 때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부자·부부의 삼강에 모범이 될 만한 충신·효자·열녀의 행실을 모아 편찬한 교훈서이다. 내용을 그림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였으며, 『오륜행실도』 등과 함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윤리 교과서로 널리 유통되었다. 일석 문고본은 1581년(선조 14년)에 반사된 내사본으로서 16세기 국어사 연구는 물론이요 문헌학 연구에도 큰 가치를 갖는 귀중본이다.

연번	서명	발간년도	내용
6	장자크 루소 전집 Collection complete des oeuvres de J.J. Rousseau, citoyen de Geneve (신용하 문고본)	1782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의 30권으로 구성된 전집으로, 저자의 고향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1782년 출판된 것이다. 본서는 근대 교육학의 고전으로 불리는 ‘에밀’을 포함하여, ‘사회계약론’, ‘고백록’ 등 저자의 명편이 모두 집대성된 전집의 프랑스 혁명 이전에 간행된 초기 판본이므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7	실증 철학 강의 Cours de philosophie positive (신용하 문고본)	1864	프랑스의 철학자 오귀스트 콩트의 『실증 철학 강의』를 그의 사후 1864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판한 것이다. 오귀스트 콩트는 현대 사회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진다. 그의 사상을 집대성한 『실증 철학 강의』는 무려 12년에 걸쳐 집필된 노작으로 도합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희귀본이다.
8	유길준 서유견문 (백사문고본)	1895	유길준이 미국과 유럽 등지를 여행하면서 보고 느낀 바를 국한문 혼용체로 적은 글이다. 1985년 일본의 교순사(交詢社)에서 출간하였으며, 총 20편으로 구성되었다. 유길준의 개화사상이 반영된 이 책은 신연활자로 간행된 초기 서적이라는 점에서 문헌학적으로 높게 평가된다.
9	대한매일신보 (일사 문고본)	1905	1904년 창간한 신문으로, 영국인이 소유하여 일본의 탄압을 피해 항일운동기사를 다수 수록하였다. 논설진으로 박은식, 신채호 등이 참여하였으며 의병투쟁, 국채보상운동, 애국계몽운동과 관련이 깊은 한말 대표적 민족지이다. 현재 일사 문고에는 91호(1905.12.1.)부터 1467호(1910.9.4.)까지 소장되어 있다.
10	박은식 서사건국지 (권영민 문고본)	1907	스위스의 영웅 빌헬름 텔에 관한 역사전기소설이다. 박은식이 실러의 희곡 『빌헬름 텔』의 중역본을 번안하여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것을 국한문 혼용체로 간행하였다. 역사적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민족의 애국심과 저항정신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기증 문헌은 현존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다.
11	연설대해 演說大海 (상백 문고본)	1909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연설문 모음집으로, 독립운동가 김광제(1866-1920)가 대구 광문사에서 연설한 「국채보상발기회 연설문」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국채보상운동기록물로 분류되어 2017년 10월 30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연번	서명	발간년도	내용
12	개벽 (권영민 문고본)	1921	개벽사에서 1920년 6월에 창간한 월간 종합잡지이다. 이 잡지는 일제의 여러 압력에도 불구하고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1920년대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기증 문헌은 1921년 11월에 발간된 제17호이다
13	이광수 무정 (권영민 문고본)	1924	이광수의 장편소설 『무정』은 주제나 문체 등에서 근대 장편소설의 시작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큰 인기를 얻으며 광복 전까지 8번 간행되었는데, 기증 문헌은 흥문당 서점에서 간행한 제5판본으로 현존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다.
14	정지용 정지용시집 (가람 문고본)	1935	정지용의 첫 시집으로, 「바다 1」 등 총 87편의 시와 함께 정지용의 산문 2편과 편집자인 박용철의 발문이 수록되었다. 본 문헌은 정지용 시인이 가람 이병기 선생에게 직접 서명해 증정한 것이다. 이병기와 정지용은 휘문고보 교사로 함께 재직하면서 오랜 시간 문학적 교류를 나누었다. 『가람일기』에는 1935년 11월 22일에 『정지용시집』 출판을 기념해 축연을 벌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15	정지용 백록담 (권영민 문고본)	1941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으로, 25편의 시와 8편의 산문을 수록하였다. 표제작 「백록담」은 9편으로 구성된 연작시로, 백록담 등반의 기록이자 정신적 상승의 과정을 묘사한다. 나무와 사슴, 나비가 아름답게 그려진 표지 그림은 화가 길진섭의 솜씨이다.
16	이광수 무정 (백사 문고본)	1953	이광수의 장편소설로, 문체와 주제, 소설 기법 등의 차원에서 한국 근대 장편소설의 시작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무정』은 1917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된 후 1918년 신문관에서 단행본으로 처음 출간되었는데, 그 후에도 여러 판본으로 간행되었다. 본 문헌은 1953년 박문사에서 발행한 것이다.
17	문학신문 (권영민 문고본)	1956	북한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이다. 당시 주 1회 타블로이드판 4면 순국문으로 발간되었다. 기증된 문헌은 창간호부터 1960년 12월 27일까지 누락 없이 보존한 국내 유일의 자료이며, 전후 북한의 중요 문예정책과 문단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본 문헌은 1956년 12월 6일자 창간호이다

(2) 권영민 문고의 고문헌

연번	서명	발간년도	내용
1	근사록	17세기 초	송나라 때 편찬된 성리학의 지침서이다. 1175년에 주희와 여조겸이 주돈이·정호·정이·장재 등 네 명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의 글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 편집하였다.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필독서 중 하나이다

연번	서명	발간년도	내용
2	중용언해, 대학언해	1810	『중용』과 『대학』은 유교의 대표적인 경서인 사서四書의 하나이다. 조선시대 사서 언해본은 선조 때 처음 간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이처럼 경서의 우리말 번역이 나와서 널리 출판되었다는 것은 경서 연구가 축적되었다는 것, 유학과 성리학을 널리 교육하기에 편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초사집주	17세기 초	전국 시대 초나라의 문인인 굴원 등의 노래를 모은 책인 《초사》에, 송나라 주희가 여러 사람의 주석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문장 학습의 교범으로 널리 읽혔다. 한산이씨 이경전李慶全(1567-1644)의 장서인이 있다.
4	성리대전서	18세기경	성리학자들의 학설을 주제별로 모은 책이다. 명나라 때 호광 등이 영락제의 명을 받아 1415년에 편찬하였다. 조선에서는 1427년에 처음 간행된 이후 꾸준히 간행되고 보급되었다. 방대한 분량으로 성리학의 백과사전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5	목은시고	1626	고려 말의 문신·학자이자 충신으로 유명한 목은 이색(1328-1396)의 시집이다. 전질은 35권 15책인데, 그중 14권 5책이 기증되었다. 이색은 한산이씨의 증시조로서, 그의 시집과 문집은 후손들에 의해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6	자치통감강목	18세기경	송나라 주희(1130-1200)가 사마광(1019-1086)의 《자치통감》에 의거하여 편집한 역사서이다. 조선시대 여러 차례 간행되어 왕세자 교육에 사용되었고, 반가에서는 선비들이 중국의 역사를 공부할 때 많이 활용되었다.
7	책학연의	15세기	책학, 즉 과거 공부를 위한 유서類書이다. 명나라 초기인 15세기에 편찬되어 간행된 것으로, 국내 유일본이고 전세계적으로도 현존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다.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역사적 근거 사실 등이 수록되어 있다.
8	찬주분류두시	18세기경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집에, 원나라 학자 고초방高楚芳이 여러 사람의 주석을 모아 편찬한 문헌이다. 중국의 시성詩聖인 두보의 시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필독서였으므로 여러 종류의 판본과 선집들이 수세기에 걸쳐 유통되었다.
9	국조보감	1782	역대 조선 국왕의 치적 중에서 통치의 모범이 될 만한 사실을 골라서 수록한 편년체의 역사서이다. 세조 때 최초로 간행된 뒤 몇 차례 걸쳐 증보되었는데, 권영민 문고본은 1782년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것이다.
10	문원보림	1873년경	권이생權以生이 편찬한 『사요취선史要聚選』을 증보하여 이승기가 편찬한 유서類書이다. 제왕, 장수, 성현, 명필 등 주제를 나누어 여러 책에서 발췌한 자료를 수록한 것이다. 유서는 널리 자료를 수집하여 항목별로 분류해 정리함으로써 공부에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편찬된 전근대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11	주자어류대전	1906	주희가 성리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제자들과 문답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주자어류대전』은 주희의 주요 사상을 잘 설명하고 있어 주자학의 교과서로 간주되었다. 조선시대 여러 차례 간행되어 널리 활용되었다.

(3) 권영민 문고의 근대문헌

연번	서명	발간년도	내용
1	조명희 김영일의 사	1923	단편소설 「낙동강」 등을 지은 조명희의 창작 희곡이다. 당시 동경 유학생들의 사상적 갈등과 가난, 인간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921년 극예술협회의 조선 순회공연에서 큰 호응을 얻어 희곡집으로 간행되었다. 권영민 문고본은 현존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다.
2	염상섭 만세전	1924	염상섭의 장편소설로, 동경 유학생의 귀국 과정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리얼하게 묘사하였다. 본서는 고려공사 초판본으로, 현존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다. 이후 일부가 개작되어 1948년 수선사에서 재간행되었다.
3	나도향 청춘	1927	단편소설 「병어리 삼룡이」 등을 지은 나도향의 중편소설로, 그의 사후 간행되었다. 애정 없는 정혼을 비판하며 물질적 욕구와 욕망에서 갈등하는 남녀를 그리고 있다. 나도향의 낭만적 경향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4	박태원 천변풍경	1938	박태원의 장편소설로, 청계천의 일 년 풍경을 70여 명에 달하는 다양한 인물군상을 통해 그려내었다. 여러 소설적 기법이 나타나며, 정해진 주인공이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당시 '리얼리즘의 확장'과 '파노라마적 트리비얼리즘'이라는 평을 동시에 받았다.
5	임화 문학의 논리	1924	임화의 평론집으로, 약 7년간 발표한 평론 중 42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10부로 나누어 사실주의, 휴머니즘 등 문학과 소설의 제반 문제를 방대한 규모로 폭넓게 다룬다. 화가 김용준이 장정을 맡았다.
6	김기림 문학개론	1946	김기림의 평론집으로, 10개의 글을 통해 문학에 대해 논하고 있다. 현대문학의 제문제로 '문학의 소유관계, 입장의 문제, 유산정리, 민족문학' 등을 손꼽았다. '세계문학의 분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문학 공부를 위한 추천 도서들도 소개하였다.
7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1949	문학평론가 백철이 쓴 문학사로, '근대편'이 1947년 수선사에서, '현대편'이 1949년 백양당에서 간행되었다. 본 문헌은 현대편으로 1950년 백양당, 1963년 민중서관 재판본도 함께 기증되었다. 총 6장으로 나누어 신경향파부터 해방 이후까지의 시기를 시대순으로 개괄하고 있다.
8	조지훈 시의 원리	1953	청록파 조지훈이 쓴 시론서로, '시의 우주', '시의 인식', '시의 가치', '시의 감상'의 4부로 구성되었다. 시의 창조적 해설과 유기적 통일성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9	박종화 흑방비곡	1924	박종화의 첫 시집으로, 초기 시 55편을 5부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서문에서 박영희는 이 시집에 대해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자를 애무하는 인도적 비곡을 노래하였다'고 평하였다. 당대의 염세적이고 감상적인 풍조가 반영된 시집이다.

연번	서명	발간년도	내용
10	김기림 태양의 풍속	1939	김기림의 두 번째 시집으로, 1930년에서 1934년 사이에 쓴 91편의 시를 6부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그는 서문에서 ‘신선하고 활발하며 대담하고 명랑, 건강한 태양의 풍속을 배우자’고 말하고 있다. 화가 김만형이 표지 장정을 맡았다.
11	김기림 바다와 나비	1946	김기림의 세 번째 시집으로, 1939년부터 해방 이후에 쓴 42편의 시를 5부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해방의 감격을 노래한 시, 일본 유학 시절의 여행 시, 이상의 죽음을 애도한 「쥬피타 추방」 등이 실려 있다.
12	이육사 육사시집	1956	이육사의 유고시집으로, 그의 사촌동생 이원조가 시 20편을 엮어 1946년 서울출판사에서 간행하였다. 본 문헌은 이후의 범조사 재판본이다. 신석초·김광균·오장환·이용악의 공동 서문과 이원조의 발문이 있다. 해당 시집은 이후에도 여러 번 증보판이 간행되었다.
13	박목월 산도화	1955	박목월의 첫 번째 시집으로, 「산도화」 연작을 비롯하여 「나그네」, 「청노루」 등 35편이 6부로 나누어 실렸다. 주로 1940년 초에 쓴 시편들로, 간결한 시형과 자연친화적 내용이 특징이다. 같은 청록파인 조지훈과 박두진의 발문이 마지막에 함께 실려 있다.
14	이용악 오랑캐꽃	1947	이용악의 세 번째 시집으로, 29편의 시가 8부로 나누어 실렸다. 그의 월북 이후 남한에서 신석정·김광현·유정 등이 1939년부터 해방 후까지 발표된 시들을 묶어 간행한 것이다. 표제작 「오랑캐꽃」의 한 구절이 표지에 그려져 있는데, 이 시는 유이민의 망국적 비애와 궁핍화를 형상화하고 있다.
15	이용악 리용악 시선집	1957	북한에서 간행된 이용악의 시집이다. 68편의 시가 5장으로 나누어 실렸다. 2부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에 「오랑캐꽃」을 포함한 저자의 해방 이전 시들이 다수 수록되었다. 「쓰베트에 영광을」, 「격류하라 사회주의에로」와 같은 시들에서는 북한 특유의 이념적 구호가 엿보인다.
16	박세영 산제비	1938	박세영의 첫 시집으로, 그의 초기와 말기 시 40편이 8부로 나누어 실렸다. 이기영의 서문과 임화의 발문이 있다. 표제작 「산제비」에 관해 이기영은 ‘가장 쉬운 말로 간결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탈속하고 구체적으로 묘파되었다’라고 평하였다.
17	박세영 박세영 시선집	1959	북한에서 간행된 박세영의 시집이다. 72편의 시가 11장으로 나누어 실렸다. 속리산, 금강산, 몽고 관련 시초들과 「산제비」를 포함한 저자의 해방 이전 시들이 수록되었다. 「광휘로운 당의 기치여」, 「침략자 미군 나가라」와 같이 당의 이념에 찬동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지는 시들이 다수 존재한다.
18	조명희 포석 조명희 선집	1959	조명희 탄생 65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간행한 것이다. 1부는 「봄 잔디밭 위에서」를 포함한 시 42편, 2부는 「낙동강」을 비롯하여 소설·수필·희곡 17편, 3부는 「시월의 노래」를 포함한 시 9편, 4부는 평론 5편을 실었다. 마지막 부록에는 조명희를 회상하는 이기영과 한설야의 글이 있다.